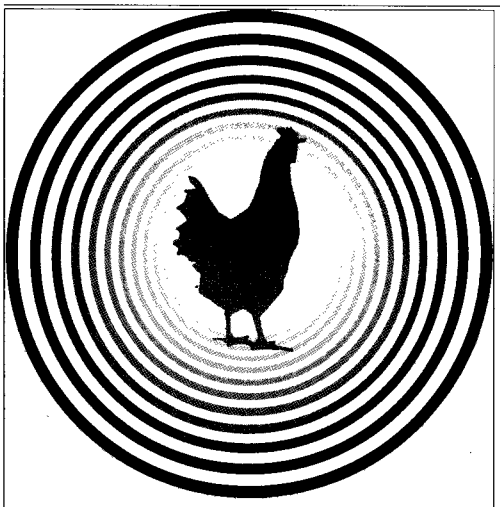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부

1998종계운영자금
상환기간 농장별 연장 가능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이 심각해 도산 위기에 처한 종계업을 구하기 위해 정부는 계열화업체에 이어 원종계 및 종계, 일반 농가에 이르기까지 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하였다.

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종계장은 당초 60억원에서 48억만이 지원이 되었고, 원종계는 30억중 21억5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만기가 도래한 자금은 연장을 원하면 대출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일부 내입 후 상환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출만료일 15일 전까지 대출조합에서 연장에 대한 문의를 한 후 대출연장 신청을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연체이자는 연 17%로 1998년 4월 15일 이전에 대출받은 자금은 연 20%로 되어 있다.

닭고기 수입자제 촉구
수입시 원산지 표기 당부

매월 평균적으로 닭고기 수입량이 2천톤을 상회하여 육계업계를 불안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회와 전국양계축협은 공동으로 닭고기를 수입하는 종합상사 등 대기업 무역업체와 실수요 육가공업체에 무차별적인 수입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국내 닭고기 소비는 통닭 위주이나 일부 부분육의 경우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원산지 표시를 규정대로 지켜줄 것도 함께 촉구하였다.

닭뉴캣슬병예방접종 실시명령 개정
수송상자에 표시하면 확인서 교부로간주

농림부가 닭뉴캣슬병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개정고시함에 따라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닭뉴캣슬병 예방접종 실시 내용은 △전국 부화장에서 생산되는 병아리 △예방약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후 1년간 보관 △수송상자에 표시하면 예방접종 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부화장이나 실용계 농장에서는 백신접종 방법상의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 등의 이유를 들어 원하는 농가에게 백신으로 공급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초 방침대로 개정고시가 되어 농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국산 냉장계란 64만개 수입
국내 가격에 따라 수입량 변화될 듯

그 동안 식란의 수입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견하였으나 난가가 상승하면서 유통상인들이 계란 수집에 어려움이 따르자 냉장 상태로 식란 수입을 감행하여 채란업계에서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 반입된 냉장 식란은 태국에서 선적되어 지난 2월 24일 부산에 도착한 후 3월 18일 검역을 마치고 정식 통관되었다. 도착가격은 개당 66원선이며, 통관후 가격은 약 90원선인데 마진과 국내 운송비, 해체작업비까지 계산하면 개당 100원이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채란업계는 환율하향과 중국산 수입제한 해제에 대비해 계란수입을 염두에 두고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하림 산란계 계열화사업 진출
외부구입 유지후 계약사육 확대

육계 계열화사업으로 자리를 잡은 (주)하림이 거래선의 다양한 축산물 납품요구를 수용한다는 방침 아래 조만간에 계란을 납품하기 위해 산란계 계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반 식란 공급은 물론 계란가공품까지 생산하여 시장 규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산란계 농장에 사료와 병아리를 공급하여 계란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GP센터는 고창양계로부터 인수한 선별기를 대거 수리한 후 가동할 예정이며, 시기는 6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육계 생산성 급격히 하락
질병 규명 안돼 농가불안

육계 출하가격이 3월말 접어들어 강세를 보였으나 질병으로 인한 폐사가 높아 농가의 손해가 커지면서 출하량이 감소한 원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폐사율이 10%를 넘고 있는데 일부 농가는 20%선 마저 뛰어넘어 출하후에 정산을 하면 손해를 보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계의 폐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소문에는 ND, 인플루엔자, J바이러스, 저혈당증 등에 의한 피해라는 막연한 진단을 내리고 있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내려져 합리적인 대처를 해야 육계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양계